

장수 장계면에 '스마트 가축시장' 개장

전국 어디서든 스마트폰 통해 한우 온라인 구매 가능

장수=유기종 기자

장수군과 무진장축협은 18일 한우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계 스마트 가축시장'을 개장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장영수 군수, 김용문 군의장, 박용근 도의원, 정재호 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송제근 무진장축협조합장과 임지원, 한우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 사업비 2억원이 투입된 장계 스마트 가축시장은 출하되는 한우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기존의 종이인쇄 형식의 계류대를 전자식 스마트 계류대로 전면 교체해 매

수인에게 한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한우에 대한 실시간 정보변경이 가능해졌다.

또한 경매상황 실시간 방송·송출 설비와 전자식 경매시스템을 갖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가축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경매를 할 수 있다.

비대면 거래를 통해 방문자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감염병과 가축 질병 지역확산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수 군수는 "전북 최초 장계 스마트 가축시장이 개장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스마트 가축시장 개장은 포스트 코



로나 시대에 장수군 축산업의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성과"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한우 값 문제와 수급 불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가축방역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 "더 좋은 정읍에 모든 힘 쏟겠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18일 '2022년 첫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운영 및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지난해 시민과 시의회의 성원에 힘입어 정읍의 미래를 바꿀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며 "2022년에도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이라는 찬란한 빛을 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나간 감염병과의 싸움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위기의 시간을 함께 극복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크게 5개 목표를 토대로 올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제1호 목표는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조성, 살맛나는 첨단경제 도시 조성, 함께하는 교육복지 도시 조성, 스마트한 농·생명 도시 조성, 품격 있는 안



전 행복 도시 조성이다.

유 시장은 "내장산과 용산호, 문화광장을 아우르는 트라이앵글 관광벨트를 완성하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유 시장은 "민선 7기는 그 디딤돌을 준비하는데 충분했으며 이제 도약의 가치를 이룰 때이며 우리 정읍은 반드시 문화·관광·경제·복지·교육·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몇 단계 더 도약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장수군, 산림분야 일자리 참여자 선발

장수군은 2022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취업취약계층 청년층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한다.

모집분야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8명, 도시숲 관리 인력 8명 등 46명이다.

오는 21일까지 도시숲 관리 인력 분야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군청 산림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군은 서류심사 후 체력검정 및 면접을 시행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도시숲 관리 인력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불감시원 53명, 숲해설가 2명,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2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3명,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 숲길등산지



도사 1명, 임도관리원 3명, 숲가꾸기파트너 5명,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6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장 군수는 "이번 일자리 제공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기종 기자

지역 포커스



정읍시, 고용불안 운수종사자 80만원 지원

전세버스 130명, 택시(법인, 개인) 500명 대상 설 명절 전 지급

정읍시는 21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택시 기사에게 전액 도비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전세버스 기사 130여 명과 택시(법인, 개인) 기사 590여 명으로 설 명절 전에 1인당 8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억 7,000여 만 원이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정읍시에 등록돼 있고, 2021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 한정된다.

지원금은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세버스 조합과 개인택시·일반 택시법인 등을 통해 정읍시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민생 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다.

세부 사항은 택시조합·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후 지급요건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택시 기사들에게 위기 극복의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장수군, 자동차세 1월 연납 9.15% 세액 공제

장수군이 다음달 3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괄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군청(350-2216)이나 읍면사무소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유기종 기자

부안군, 민선7기 공약사업 완료율 88%

부안군은 지난 17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진적인 결과 10건 중 9건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실적 평가는 분임별로 나눠 각 세부사업의 당초계획 이행여부, 사업진척도, 사업비 확보 현황, 집행비율 등 각 부서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와 각 공약담당자의 설명, 질의·응답 등을 통해 평가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2020년 11월 공개모집 공고 등을 거쳐 선발했으며 참여행정, 지역경제, 문화관광 등 4개 분임으로 나눠 각 분임별 분임장과 일반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했다.

평가결과 군은 민선7기 69개 세부 공약사업 중 이행 완료 62건(89.8%), 정상추진 6건(8.7%), 일부추진 1건으로 평가됐다.

김재희 공약이행평가단장은 "전반적인 공약이 잘 추진되고 있다"며 "완료되지 않은 공약도 임기내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고병하 기자

부안군,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부안군은 18일 관내 농업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역 농특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2만 6,667건의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농가 및 단체가 생산한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택배 배송이 이뤄졌을 경우 택배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부안지역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 및 단체로 택배 1건당 1,5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28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거주지 읍·면 산업팀에 제출하면 선정 심사 후 택배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고병하 기자



정읍시의회, 제27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가 제27회 임시회를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조상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서 정읍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민 조례 청구 발안 제도,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보, 주민참여 확대 등 새로운 제도 정착과 생활 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상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행정을 요구를 통해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 추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과감한 도시계획관리와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공간 조성, 정읍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불필요한 공무제산을 선별해 정리 할 것 등을 역설했다. /박기수 기자

이 광고는 새전북신문이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실어드리는 공익광고입니다.

달그락곰뽕락
달그락 시민들의 사회에 대한 달달한 시선

달그락 시민들의 사회에 대한 달달한 시선

달그락곰뽕락

: 전국 최초 청소년-성인 공동저자 칼럼집 출간
4년간 기고 된 칼럼에 다양한 시민들의 시선과 사회변화의 메시지 담아

글 : 정건희, 이강휴, 조용준 외 / 도서출판 진포

도서구입문의 | 063-465-8871(청소년자치연구소), 네이버 '하늘책방' 스토어 (<http://naver.me/F101guln>)